

■ 2023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비평)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비평)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9:30~19: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가나다순) : 기혜경, 김기수, 오연서, 우혜수, 최태만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본 사업은 다양한 비평활동 장르를 통해 시각예술 전반의 비평 활성화 및 담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최소 3회 이상의 비평 관련 활동 또는 출판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내용은 조사, 연구, 수집, 리서치 트립 등 비평 활동 지원 사업과, 비평 세미나 심포지엄 등 비평 관련 행사 지원 및 비평 전문 서적 출간 및 간행물 발간 지원을 포함한다.

지원자격의 경우, 2022년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올해에는 기간제한 없이 최소 3회 이상의 실적으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경력단절 비평가에게도 비평 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

지원규모는 비평활동은 5~10백만원, 비평행사 또는 비평서 출간이나 간행물 발간은 5~15백만원으로 지원규모는 2022년과 2023년 동일하고, 올해 신청자 대다수는 비평활동의 경우 10백만원, 비평행사 및 출판 사업의 경우 15백만원의 예산 규모로 신청하였다. 전년과 달리 2023년에는 전체 예산 10%의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회계검증 수수료를 편성하도록 하여 지원자로 하여금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비평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사업구조를 보완하였다.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지원 대상팀 선정은 서류심의로 진행되었으며, 총 25팀 중 10팀을 최종 선발자로 선정하였다. 비평 관련 구체적인 활동 결과물이나 출판물을 제출하는 것이 사업 취지 상 중요하며, 실제 비평 원고의 출간을 앞둔 6명의 지원자들은 비평 원고를 함께 제출하여 비평문의 수준과 해당 비평이 향후 미술계에 미칠 영향력을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비평 원고의 수준만큼이나, 비평 활동 및 출판물 배포 계획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밝히는 것이 사업 취지에도 부합하고 지원자의 활동 계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평 글의 수준은 물론, 비평 활동의 내용과 계획, 비평서 출간계획 모두 주요 요소로 숙고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각과 신진 비평가들의 역할 또한 중시되므로,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무게감을 가진 비평글이 아니더라도, 비평계에 새로운 시각을 더해줄 비평의 소재, 비평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글 또한 심사 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

시각예술 전반에 대해 꾸준하게 비평해온 글들을 시의성 있는 시각으로 묶어 출간하려는 지원자들과 더불어, 비평이라기보다는 미술사 연구에 기반한 작가론에 가까운 선집을 출간하려는 팀도 있었다. 전자는 한국 미술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 비평가들 또는 중견 비

평가를 향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비평 선집으로서 훌륭하다고 판단되며, 후자는 비평문이라기보다 미술사적 연구서에 가깝긴 하나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은 분야를 다룬데다 비평 또한 미술사적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추후 한국 미술 비평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였다.

회화, 조각, 영상 등 미술 비평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 외에도, 공예, 건축, 퍼포먼스에 대한 비평이나 미술계 노동 구조에 대한 경험과 분석을 담아낸 글도 있어 미술계를 조망하는 시각이 더욱 다양화되고 비평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비평의 내용적 측면 외에, 새로운 시각이나 이론을 적용하여 기존 비평의 한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비평을 시도하려는 지원자들도 있어 흥미로웠다.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비평활동의 최대 지원액인 10백만원과 비평 행사 및 비평서 출간의 최대 지원액인 15백만원으로 신청한 팀들이 대다수였으며, 신청한 금액과 지원 가능액을 고려하여 신청금액에 준하는 지원금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소회 및 당부사항

고유한 시각으로 탄탄하게 시각예술에 비평 활동을 이어온 미술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 비평가들의 성과도 살펴보는 동시에, 새로운 시각에서 비평의 지평을 넓혀갈 신진 비평가들의 성장도 엿볼 수 있어서 향후 한국 미술 비평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흥미로울지 기대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비평의 다양화와 젊은 비평가들의 모색이 가능했던 것은 예술위에서 비평 사업 지원 자격 요건을 2022년 기준(최근 3년간의 실적) 보다 완화하여 2023년에는 기간 제한 없이 최소 3회 이상의 비평 실적으로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여러 비평가들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술계라는 생태계에 새로움을 뿜어줄 신진 비평가를 육성하고, 여러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비평가들을 복귀시킬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방향과 구조를 유연하게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예술위가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답습을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미술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술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의 형태를 취했으나 젊은 비평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으며, 심의를 통해 비평가들에 대해서는 물론 향후 예술위 지원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심의위원 일동